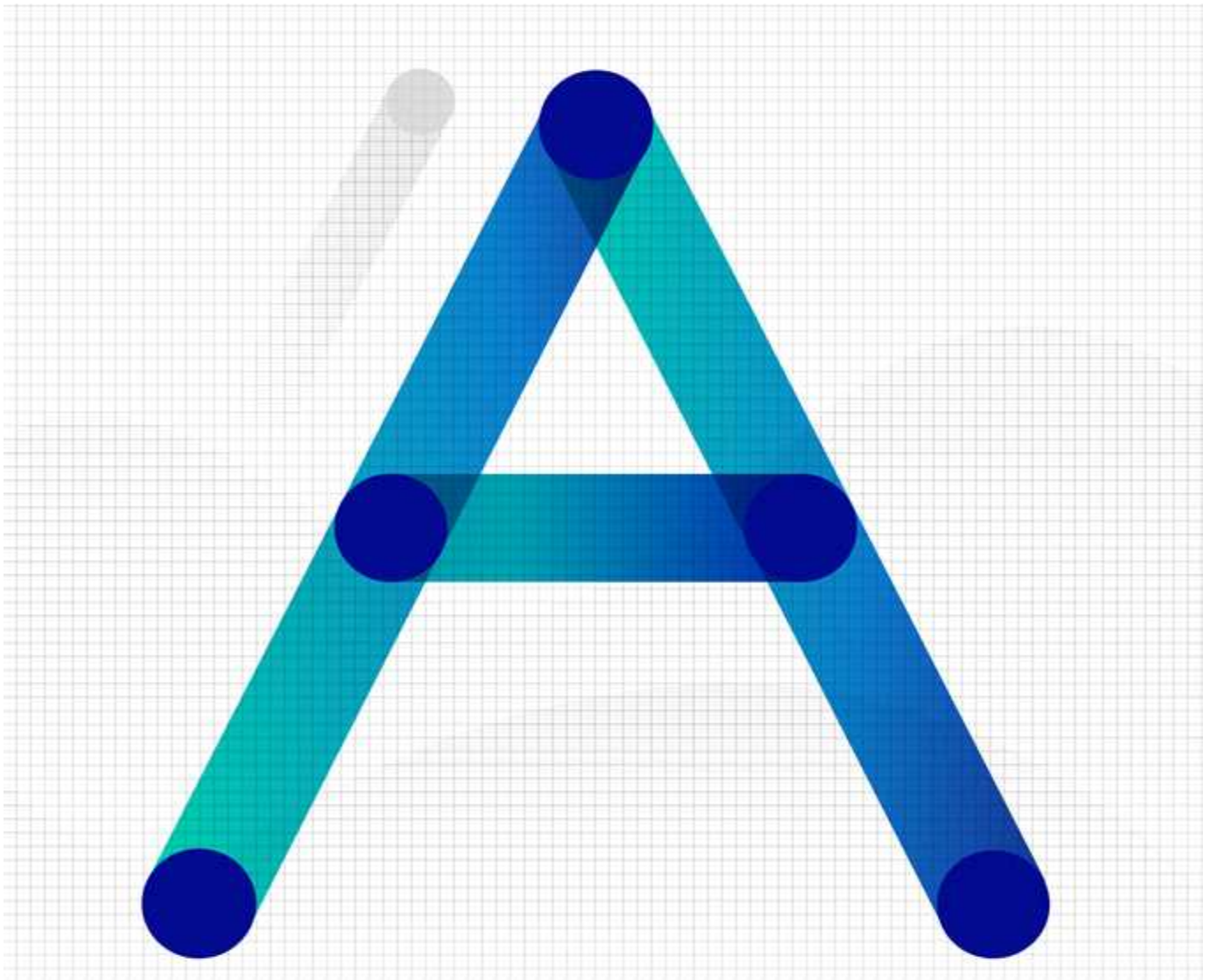


2019년 상반기 해외건설산업 동향

- I.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동향
- II. 해외건설 수주동향
- III. 해외건설 기업동향
- IV. 전망 및 시사점

작성

선임연구원 강정화 (3779-5327)





<요 약>

2017년 기준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은 전년대비 3% 증가한 4,824억달러 기록해 반등세 지속

-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은 2013년 5,440억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2016년 4,681억달러를 바닥으로 반등

2018년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은 5,000억달러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5,000억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글로벌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 증가한 4,968억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 역시 아시아 및 인프라시장을 중심으로 3%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해 5,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2018년 중동지역 발주액은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인 970억달러에 불과

- 유가 상황이 프로젝트 발주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8개월로 추정되며,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중동발주는 서서히 회복세 진입할 것으로 예상

2019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52% 감소한 48.8억달러에 불과해 수주 부진 지속

- 중동 수주액은 전년대비 97.3% 감소한 7.6억달러이며, 아시아 수주액 역시 53% 감소한 30억달러에 불과
-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12억달러이며, 토목 10억달러, 건축 23.8억달러로 전 공종에 걸쳐 전년 1분기 대비 감소
- 건축 수주액 23.8억달러 중 국내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 금액이 15억달러였으며, 플랜트 역시 기존 플랜트 유지 및 보수로 신규 수주는 없는 상황

그동안 버팀목이 되어왔던 국내 주택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해외수주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외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

- 국내 건설경기 하강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중동수주 부진이 장기화 및 증가 추세를 보여 왔던 아시아지역 수주도 전년대비 감소

2019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및 양질의 프로젝트 확보의 어려움으로 300억달러 예상

- 우리기업들의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액이 작년대비 크게 상향되었으나, 발주자 중심의 시장환경으로 인해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 수주가 전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해외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시공분야에 편중된 구조를 사업개발영역으로 밸류체인 확장이 필요



I.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동향

1.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 현황 및 전망

2017년 기준 글로벌 해외건설시장¹⁾은 전년대비 3% 증가한 4,824억달러 기록해 반등세 지속

-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은 2013년 5,440억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2016년 4,681억달러를 바닥으로 반등
-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가하락에 따른 오일&가스분야 투자가 감소하면서 2014년 이후 하향세를 기록
- 2017년 아시아,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해외건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4,824억달러를 기록
- 해외건설시장의 반등은 주요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교통 등 인프라 및 건축 투자 증가 때문

2018년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은 5,000억달러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5,000억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글로벌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 증가한 4,968억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 역시 아시아 및 인프라시장을 중심으로 3%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해 5,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아시아 인프라 투자가 전년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지역 경기호황에 따른 오일 & 가스 및 건축 관련 투자가 양호한 상황
- 2019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18년 대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2020년 이후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 상황은 다소간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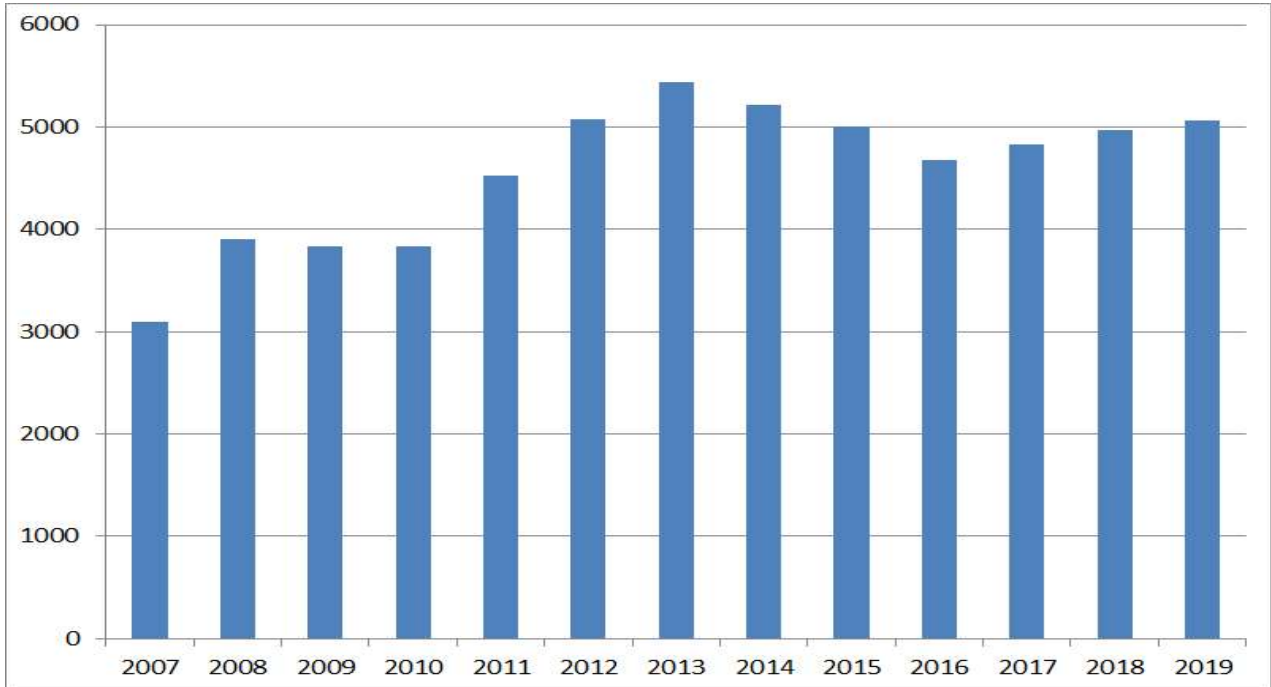
-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등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경기하락 가능성이 증가
- 2019년 이후 해외건설시장도 우호적인 환경보다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요 감소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으며, 호황을 지속해 왔던 미국경제도 성장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증가
- 글로벌 해외건설시장도 이러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이 2019년 하반기 이후 현실화될 전망

1) 해외건설 시장규모는 세계 상위 250개 기업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민간 건설기업이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를 의미



글로벌 해외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자료: ENR,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2. 지역별 건설시장 동향

(아시아) 2017년 아시아 해외건설 시장규모는 1,276억달러였으며, 2018년 1,300억달러를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

-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에서 아시아 비중은 2015년 24.1%까지 하락했으나, 2017년 26.5%에 달해 2014년 수준을 회복
- 아시아지역은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여전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아시아 건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이 2015년을 기점으로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아시아 시장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
- 아시아시장은 여전히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및 플랜트 수요가 풍부한 매력적인 시장으로 2019년에도 1,300억달러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전망
- 아시아지역은 타지역 대비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외건설 수요 증가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



(유럽 및 북미) 2017년 유럽시장은 1,023억달러, 북미시장은 782억달러를 기록

- 유럽시장은 전년대비 6.5% 증가했으며, 북미시장도 전년대비 8.2% 증가해 개도국시장 대비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
- 유럽시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가 이루어지면서 2015년 이후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 하지만 2019년 이후 브렉시트 등 유럽내 정치적 불확실성 및 경기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증가
- 미국의 경우 전력 및 도로, 항만, 공항 등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
- 장단기 금리의 역전 우려 등 호황을 누려왔던 미국 경제도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정적자 확대에 의해 계획했던 인프라 투자 역시 향후 감소될 가능성 증가

(중동) 2017년 중동시장은 3% 감소한 814억달러로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 2014년 및 2015년 중동지역 발주액은 1,800억달러에 달했으나, 2016년 이후 유가하락과 함께 발주가 감소해 시장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
- 2018년 중동 시장규모는 2017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돼 800억달러를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

지역별 해외건설 시장 현황

단위: 억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아시아	1,374	26.3	1,208	24.1	1,203	25.7	1,276	26.5
유럽	998	19.1	934	18.7	960	20.5	1,023	21.2
중동	790	15.2	765	15.3	840	17.9	814	16.9
북미	807	15.5	762	15.3	723	15.4	782	16.2
아프리카	709	13.6	644	12.9	515	13.1	624	12.9
중남미	533	10.2	527	10.6	337	6.6	272	5.6
기타	4	0.1	161	3.1	103	2.2	33	0.7
전체	5,215	100	5,001	100	4,681	100	4,824	100

자료: E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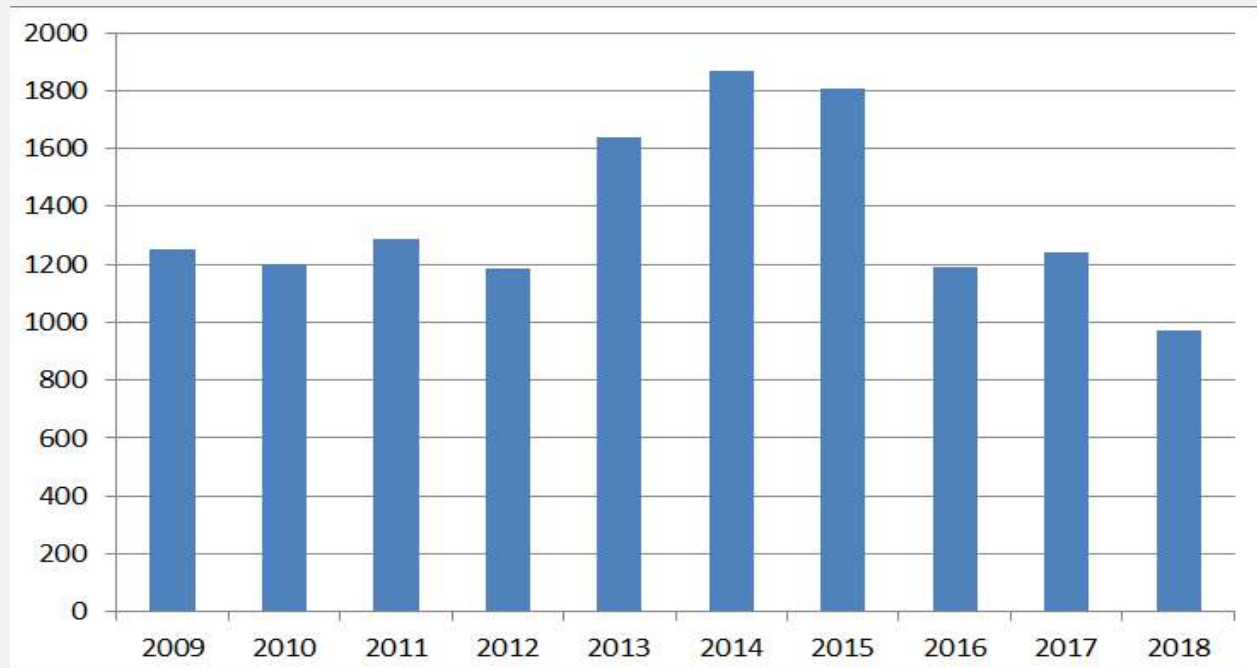
<참고 : 중동 발주동향>

2018년 중동지역 발주액은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인 970억달러에 불과

- 2018년 두바이 평균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를 기록해 전년 평균 배럴당 52달러 대비 34.6% 증가했으나, 프로젝트 발주는 21.8% 감소한 970억달러에 불과
- 중동 국가 중 UAE 발주액이 445억달러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중동 최대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64억달러에 불과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UAE는 400~500억달러 내외의 발주가 유지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14년 및 2015년 500억달러 이상 발주가 이루어졌으나 2016년 이후 300억달러 미만으로 급감
- 쿠웨이트 및 카타르의 경우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56억달러 및 51억달러에 불과
- 2019년 공종별 발주액은 수처리를 제외한 전 공종에 걸쳐 감소했으며, 2014년 700억달러를 넘었던 건설분야는 500억달러를 하회
- 유가하락에 따른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상업용 건물 등 건설시장 수요가 감소했으며, 정유분야 발주도 큰 폭으로 감소
- 유가 상황이 프로젝트 발주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8개월로 추정되며,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중동발주는 서서히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중동 프로젝트 발주동향

단위: 억달러



자료: MEED



3. 공종별 건설시장 동향

공종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교통분야가 전년대비 6.2% 증가한 1,534억달러를 기록했으며, 건축분야도 10.6% 증가한 1,122억달러를 기록

- 글로벌 인프라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투자 확대로 교통분야의 성장세가 지속
 - 교통분야 시장규모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로 선진국은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업그레이드, 후진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신규 건설이 필요한 상황
- 석유화학 등 플랜트 건설은 유가 하락 및 공급과잉 문제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2014년 1,253억달러에 달했던 석유화학 시장규모는 2017년 890억달러에 불과해 2014년 대비 28.9% 감소
 - 2017년 거의 모든 공종에서 전년대비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유가 약세 및 글로벌 제품 공급상황의 안정으로 인해 건설수요가 큰 폭으로 하락

공종별 해외건설 시장 현황

단위: 억달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시장 규모	비중
교통	1,357	26.0	1,396	27.9	1,444	30.8	1,534	31.8
석유화학	1,253	24.0	1,144	22.9	1,045	22.3	890	18.5
건축	1,167	22.4	1,068	21.4	1,014	21.7	1,122	23.3
발전	544	10.4	541	10.8	456	9.7	500	10.4
산업시설	269	5.2	206	6.0	147	3.1	192	4.0
상수	135	2.6	139	2.8	122	2.6	123	2.6
제조공장	98	1.9	108	2.2	101	2.2	97.4	2.0
하폐수	69	1.3	49.6	1.0	60	1.3	71.1	1.5
통신	67	1.3	40.5	0.8	48	1.0	50	1.0
유해폐기물	8	0.2	12.1	0.2	12	0.3	9	0.2
기타	247	4.7	298	6	232	5.0	231	4.8
합계	5,214	100	5,001	100	4,681	100	4,824	100

자료: ENR



4. 국가별 해외건설 매출현황

2017년 해외건설 최대 매출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전년대비 15.5% 증가한 1,14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4.1% 감소한 257억달러

- 중국은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외건설 매출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최초의 국가
- 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되었던 중국 해외건설 매출이 중동 등 주요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으로 확대 중
- 과거 해외건설 매출이 도로 등 토목분야에 국한되었으나, M&A를 통한 영역 확장으로 석유 화학·정유·발전 등 플랜트분야로 진출 확대 중
- 우리나라는 2015년 406억달러를 기록 후 2017년 257억달러까지 하락, 국가별 매출순위에서도 2015년 4위에서 2017년 6위로 두 계단 하락
- 2017년 우리나라 수주도 부진해 2018년 매출액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의 우리나라 점유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

국가별 해외건설 매출 현황

단위: 억달러

국가	2014년		국가	2015년		국가	2016년		국가	2017년	
	매출액 (억달러)	점유율 (%)		매출액 (억달러)	점유율		매출액 (억달러)	점유율		매출액 (억달러)	점유율
중 국	900.2	17.3	중국	937	19.3	중국	987	21.1	중국	1,140	23.6
스페인	684.1	13.1	스페인	598	12.3	스페인	590	12.6	스페인	670	13.9
미 국	594.0	11.4	미국	473	9.7	미국	419	8.9	프랑스	368	7.6
프랑스	513.7	9.8	한국	406	8.3	프랑스	417	8.9	미국	335	7.0
한 국	370.6	7.1	프랑스	346	7.1	한국	339	7.3	독일	303	6.3
독 일	338.4	6.5	독일	291	6	이태리	267	5.7	한국	257	5.3
이태리	299.2	5.7	이태리	256	5.3	터키	256	5.5	일본	253	5.2
터 키	292.8	5.6	일본	252	5.2	일본	244	5.2	터키	232	4.8
일 본	218.1	4.2	터키	226	4.6	독일	236	5.0	영국	222	4.6
오스트 리아	156.2	3.0	브라질	157	3.2	영국	88	1.9	이태리	186	3.9
전 체	5,215	100	전체	5,001	100	전체	4,681	100	전체	4,820	100

자료: ENR



Ⅲ.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동향

2018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321억달러를 기록해 300억달러를 회복

- 2007년 398억달러를 시작으로 400억달러 이상 해외수주를 기록했으나, 2016년 이후 300억달러 내외의 수주를 기록 중
-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전년대비 29.6% 증가한 165억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의 50.5%를 차지해 최대 수주지역으로 부상
- 이에 반해 중동수주액은 중동 발주 감소 및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이 맞물리면서 전년대비 37% 감소한 92억달러를 기록해 2006년 이후 최저치
- 2018년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184억달러, 토목 71.6억달러, 건축 53.8억달러를 기록
-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대비 7.5% 감소했으나, 토목 및 건축분야는 각각 39.2%, 123% 증가
- 2018년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 및 플랜트 부진, 아시아 및 인프라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2019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52% 감소한 48.8억달러에 불과해 수주 부진 지속

- 중동 수주액은 전년대비 97.3% 감소한 7.6억달러이며, 아시아 수주액 역시 53% 감소한 30억달러에 불과
-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12억달러이며, 토목 10억달러, 건축 23.8억달러로 전 공종에 걸쳐 전년 1분기 대비 감소
- 건축 수주액 23.8억달러 중 국내 기업 발주가 금액 15억달러이며, 플랜트 수주 역시 기존 플랜트 유지 및 보수 물량으로 신규 수주는 없는 상황
- 수주액도 하락했지만 더 문제는 주로 국내 발주물량 중심의 수주로 질적 악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국내 주택건설시장도 2019년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가 필요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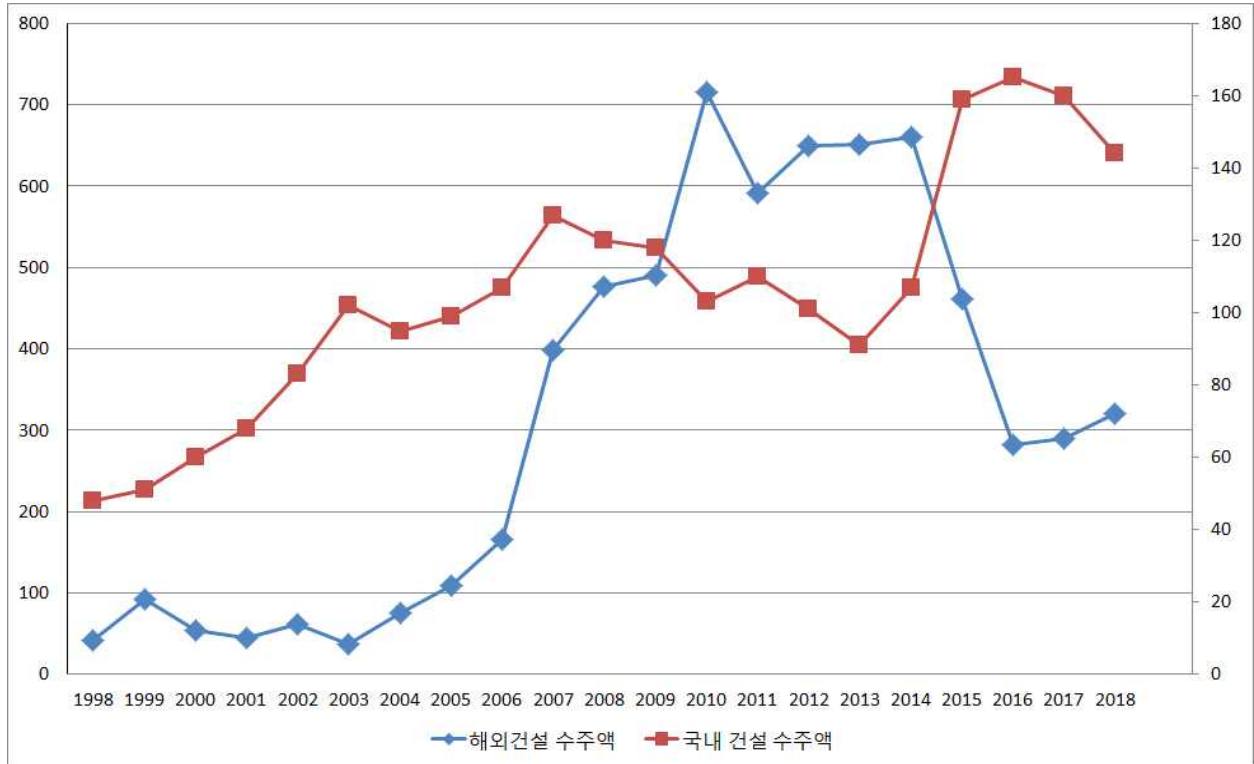
- 국내 건설수주액은 2007년 이후 평균 110조 내외였으나, 2015년 이후 수주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15년 158조원, 2016년 165조원, 2017년 160조원 등 160조원을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18년까지 국내 건설수주액은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 이후 점차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 해외건설 수주 부진이 지속될 경우 2020년 이후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
- 해외건설 수주는 올해에도 전년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및 해외 건설 수주 모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해외건설 수주액 vs 국내 건설수주액 동향

단위 : 억달러

단위 : 조원



자료: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주 : 해외건설수주액은 억달러이며, 국내 건설수주액은 조원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액 및 비중

단위: 억달러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분기
중동	369	261	313	165	107	146	92	7.6
비중(%)	56.9	40.0	47.4	35.8	37.9	50.3	28.7	15.7
아시아	194	275	159	197	127	125	162	30
비중(%)	29.9	42.2	24.1	42.7	45	43.1	50.5	61.6
유럽	5.3	7	67.5	9.6	6	1.3	37.1	4.8
비중(%)	0.8	1.1	10.2	2.1	2.1	0.4	11.6	9.8
중남미	61.9	33.3	67.5	45	16.2	3.6	7.3	0.7
비중(%)	9.6	5.1	10.2	9.8	5.7	1.2	2.3	1.5
아프리카	16.1	10.8	21.9	7.5	12.2	7	12.2	2.4
비중(%)	2.5	1.7	3.3	1.7	4.3	2.4	3.7	4.9
북미	2.3	63.6	30	36	13.7	5.5	10.4	3.1
비중(%)	0.4	9.8	4.5	7.9	4.9	1.9	3.2	6.5

자료: 해외건설협회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및 비중

단위: 억달러

공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97	461	606	282	624	290	662	321	130	48.8
토목	70	85	53	64.4	48	51.4	57	71.6	14	10.5
건축	245	71.1	201	53.3	232	24.1	243	53.8	37	23.8
플랜트	50	265	56	132	65	199	51	184	15	11.9
전기	34	8.5	52	14.8	54	7.3	41	3.6	22	1.2
통신	15	1.8	5	0.03	7	-0.2	6	0.2	0	0.1
용역	283	30	239	16.9	218	8.4	264	8.2	42	1.3

자료: 해외건설협회



플랜트 수주 감소는 해외건설 수주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중 발전 플랜트 감소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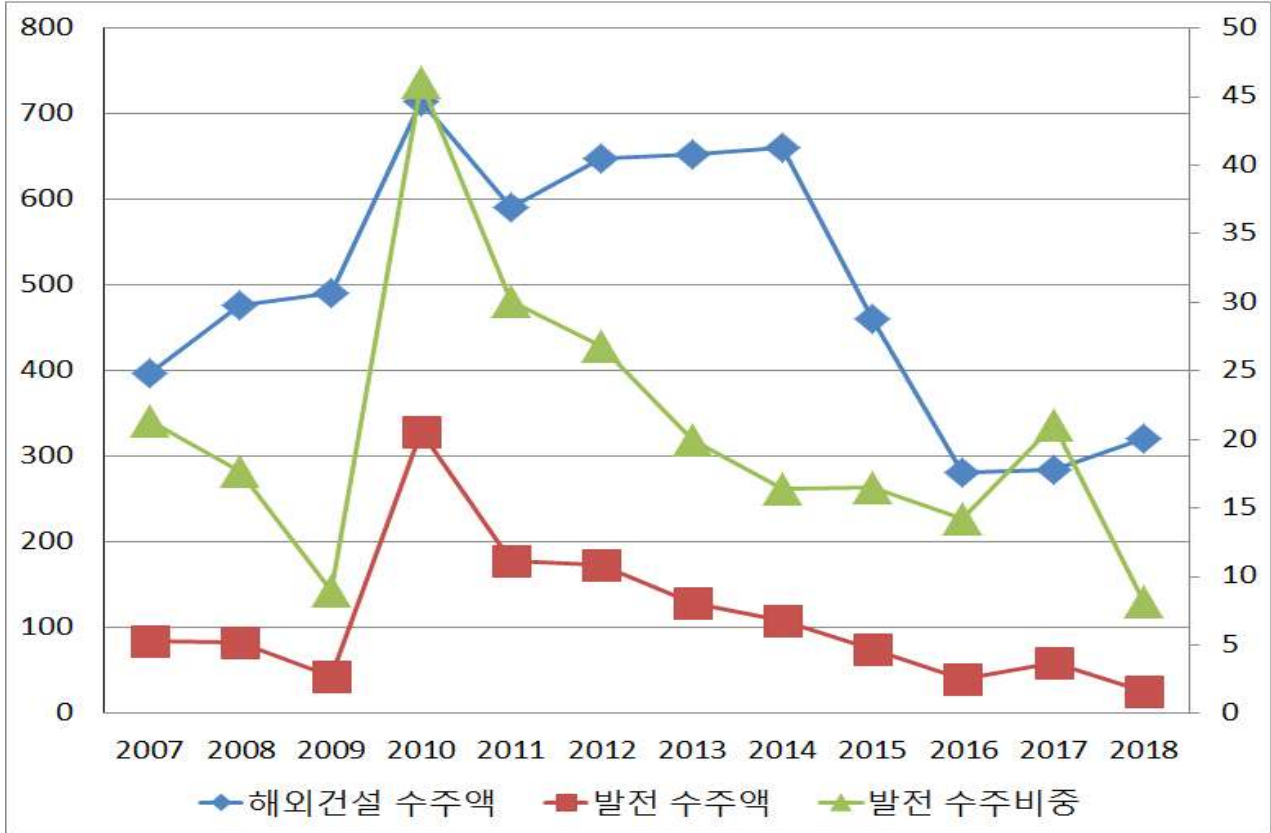
- 2010년 해외건설 수주액 중 발전부문은 329억달러를 수주해 전체 수주액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건설 수주에서 큰 비중을 차지
- 하지만 매년 발전분야 수주액은 낮아지고 있으며, 2018년 26.3억달러를 기록해 2007년 이후 가장 부진
- 2018년 발전분야 수주비중은 해외건설 수주액 중 8.2%에 불과해 여타 해외건설 분야 중 수주 하락 폭이 가장 높은 상황
- 이는 세계 발전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부족 및 과거 대비 더욱 치열해진 경쟁환경 때문
- 2018년 기준 세계 발전시장의 발주량 320GW 중 160GW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주되는 등 세계 발전산업 패러다임이 석탄 및 가스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이동 중
- 이에 반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발전분야 수주의 99%는 석탄 및 가스발전 분야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주액은 전체 발전수주액의 0.9%에 불과
- 석탄 및 가스발전분야의 경우 유럽업체 뿐만 아니라 중국, 터키 및 인도업체들의 공격적인 수주로 인해 과거 대비 저마진 고위험 분야로 전락한 상황
- 세계 발전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을 못할 경우 발전분야 수주부진은 지속될 전망



해외건설 수주액 발전분야 수주비중

단위 : 억달러

단위 : %



자료: 해외건설협회



IV. 해외건설 기업 동향

2016년을 바닥으로 주요 건설사 해외건설 수주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 대비 여전히 부진한 상황

- 상위 10위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66억달러로 2018년 수주액 321억달러에서 83%를 차지
- 국내 아파트 경기 호황으로 주택사업 부문의 비중이 큰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는 감소했으나, 해외건설 전문기업의 수주액은 2016년 이후 회복 중
- 국내 기업들의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액은 국내 건설시장 감소에 대한 우려로 전년대비 대폭 상향 조정
-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은 2019년 해외건설 신규 수주액을 전년대비 각각 85%, 75% 증가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다른 건설사 역시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확대할 계획
- 2015년 국내 상위 건설사 매출의 50% 이상이 해외부문에서 발생했으나, 2016년 이후 수주가 급감하면서 해외건설 매출 비중은 30%선까지 하락한 상황
- 2019년 이후 국내 건설경기 하강으로 국내 건설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건설 수주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국내 주요 건설사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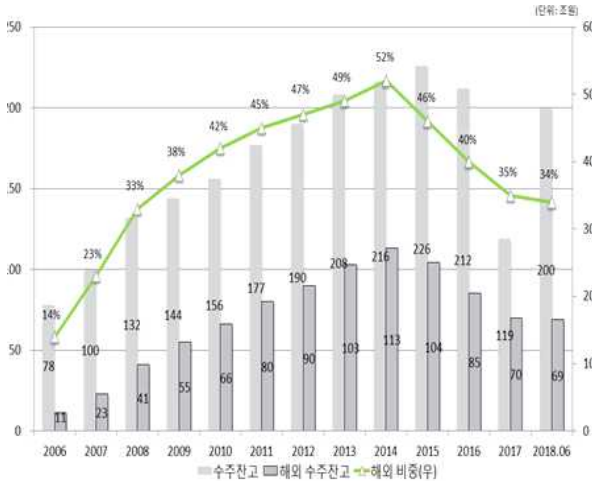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삼성ENG	70.7	105	31.7	42.4	5.8	13.5	36.5	69.4
현대ENG	41.1	35.9	52.7	96.5	57.7	23.6	48.6	49.6
삼성물산	46	38	136.3	67.9	56.5	51.1	15.3	34.9
SK건설	36.9	25.6	47.8	66.6	43.2	2.1	21.1	29.2
대우건설	50.6	38.2	50	35.5	25.8	7.9	22.7	20.6
쌍용건설	7.6	5.9	1	4.2	0	9.6	0.5	14.4
대림산업	59.2	23.1	39.5	20.9	23.1	6	26.6	13.7
현대건설	47	105	109	110.6	34	29.7	21.9	13.1
포스코건설	69	46.8	22.4	29	21.5	19.7	13.9	12.2
GS건설	41.6	44.8	52.9	59.5	55.4	20.9	14.7	9.3

자료: 해외건설협회



국내 주요 건설사 수주잔고 현황 및 매출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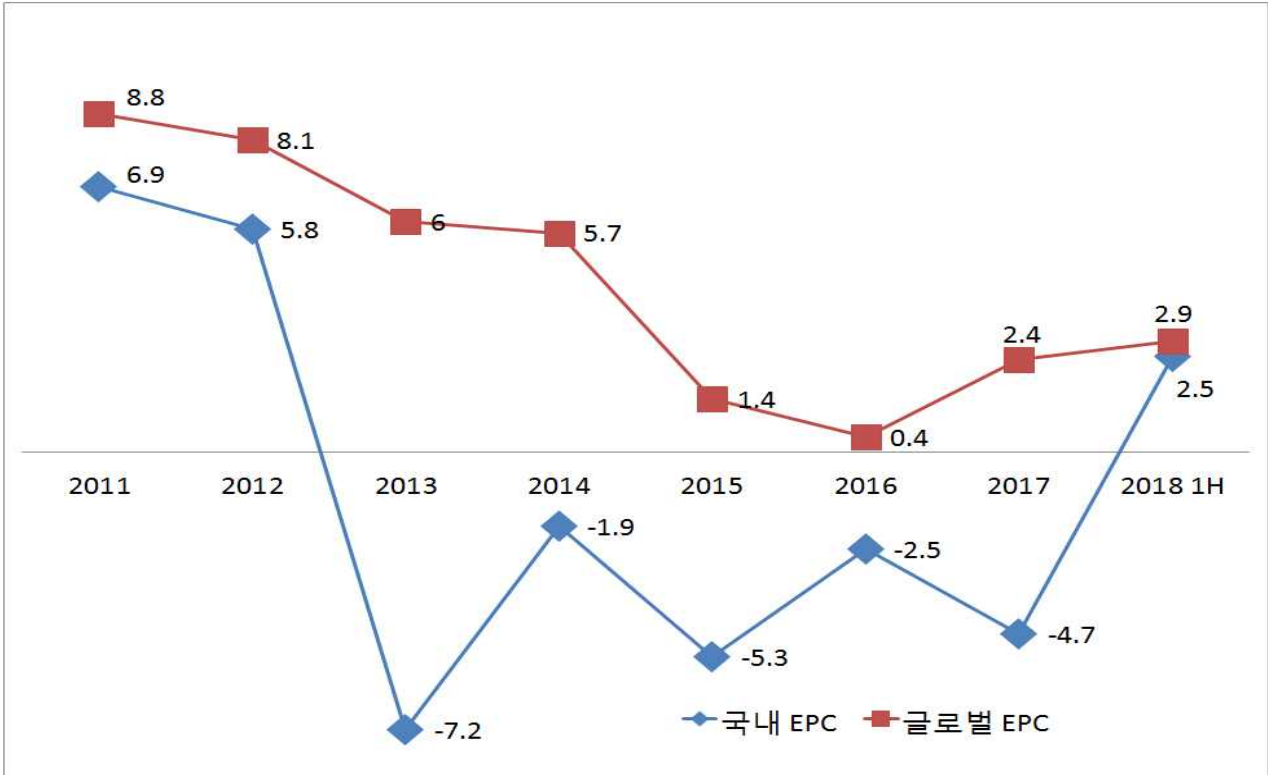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국신용평가

2013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해외건설 수익률이 2018년 1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

- 2010년대 대규모 적자 수주의 후유증으로 2013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해외건설 영업이익률은 2018년 1분기 이후 플러스 전환
- 2013년 이후 일부 프로젝트에서 공기지연 및 원가율 상승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부실 발생
- 2017년까지 부실 프로젝트의 정리가 상당부분 이루어 졌으며, 추가적인 부실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
- 2017년 이후 중국 기업의 중동 수주액이 우리기업의 수주액을 넘어서 향후 본격적으로 중동시장에서 중국과 수주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석탄 및 가스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업체와 기술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으로 중동 프로젝트 수주에서 중국업체의 공격적인 수주는 우리기업 수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선진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우리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나, 2014년 5%를 넘었던 글로벌 EPC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2%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
- 과거 높은 수준을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던 글로벌 EPC기업도 2015년 이후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글로벌 해외건설시장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반증
- 중동 발주 감소 및 중국, 터키 등 후발기업들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격화는 프로젝트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발주자 중심의 시장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EPC 기업들의 수주잔고 감소 및 중국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수주를 위한 시장참여자의 경쟁강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
-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확보가 여전히 어려워 상황으로 시장참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현 상황에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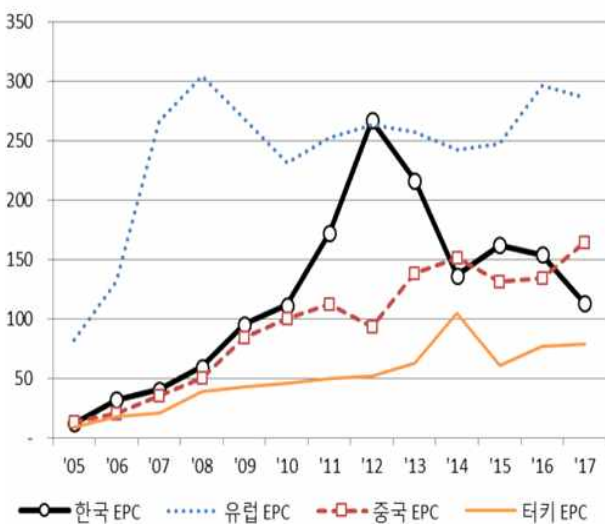
국내 주요 건설사 VS 글로벌 EPC 영업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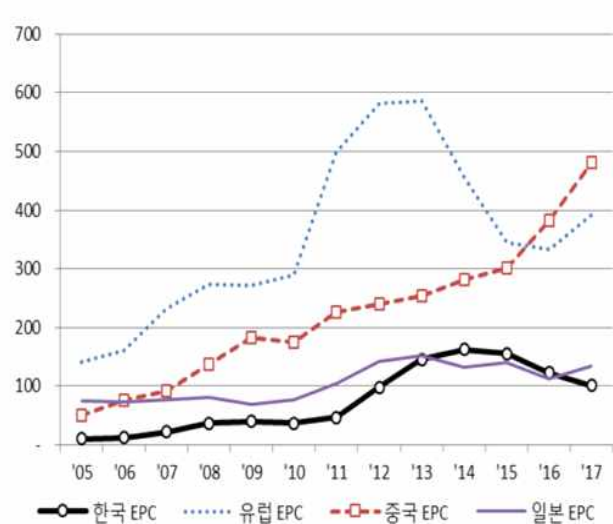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국내 주요 건설사 VS 글로벌 EPC 주요 지역 매출 현황 단위: 억달러

글로벌 주요 건설사의 중동지역 매출 현황



글로벌 주요 건설사의 아시아지역 매출 현황



자료: E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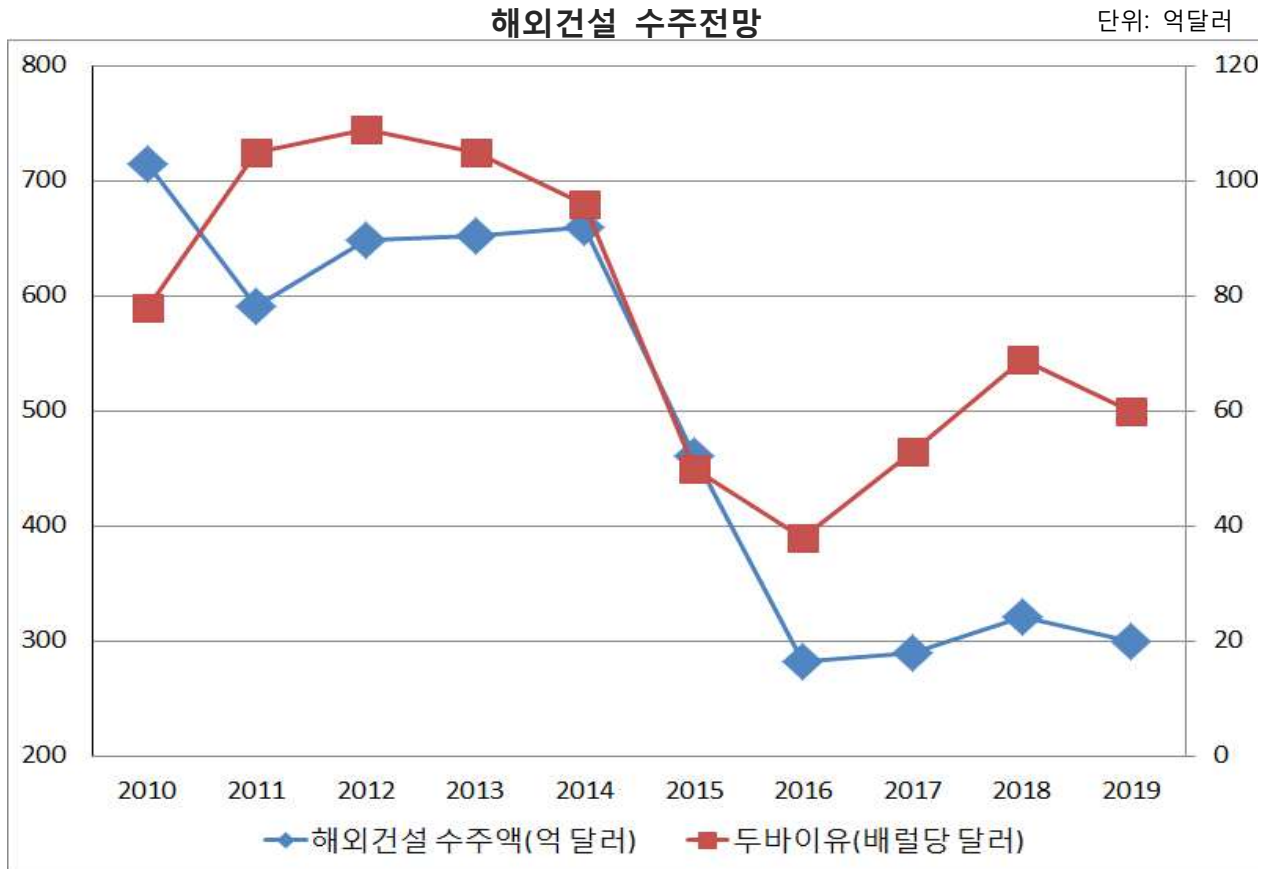
IV. 전망 및 시사점

그동안 버팀목이 되어왔던 국내 주택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해외수주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외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

- 2015년 52만세대에 달했던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8년 32만세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2019년 이후 국내 건설경기 호황세는 서서히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
- 국내 건설경기 하강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중동수주 부진이 장기화 및 증가 추세를 보여 왔던 아시아지역 수주도 전년대비 감소
- 해외건설산업의 고위험, 저수익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떤 분야에 어떻게 우리 기업이 포지션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음

2019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및 양질의 프로젝트 확보의 어려움으로 300억달러 예상

- 미·중 무역분쟁 및 유럽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해외건설 발주환경도 전년대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 IMF는 2019년 1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3.7%에서 3.3%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 주요 기관들은 전년대비 세계 경기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하반기 유가상승에 따른 중동시장의 발주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나, 중동지역 수주 경쟁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어 수주에 따른 리스크도 상존
- 중국의 공격적인 해외건설 수주는 우리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유럽업체들의 가격경쟁력 향상도 부담스러운 상황
- 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되었던 중국 해외건설 수주가 중동 플랜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유럽 플랜트 업체들은 현지 인력 조달 등 글로벌화에 성공해 가격경쟁력이 상승
- Petrofact, TR사 등 유럽계 플랜트 업체들도 중동 플랜트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중동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업체간 경쟁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
- 우리기업들의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액이 작년대비 크게 상향되었으나, 발주자 중심의 시장 환경으로 인해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 수주가 전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추이가 지속될 경우 300억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존재



자료: 해외건설협회,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해외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시공분야에 편중된 구조를 사업개발영역으로 밸류체인 확장이 필요

- 글로벌 선도업체는 PMC²⁾, FEED³⁾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고부가가치인 영역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쟁강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시공분야에 집중
- PMC 및 FEED 등 상위 밸류체인 진출은 Track record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은 투자개발형사업 진출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 하지만 2018년 기준 투자개발형 사업비중은 3.7%에 불과
- 우리 건설사의 단기 자금회수 및 투자개발형 사업의 핵심역량인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이 분야 진출이 미진한 상황
- 해외사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대한 국내 건설사의 지분 참여를 통한 투자 규모 확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존재

2)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 프로젝트 관리 운영

3) FEED(Front End Engineering and Design) : 프로젝트 확정 전 프로젝트기간, 비용, 기술사와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단계



금융조달별 해외건설 수주추이

단위: 억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주처 예산	538	372	237	175	253
시공사 금융	69	36	11	61	7.3
투자개발형	22	14	1	15	12
ODA	6	14	12	29	13
기타	25	26	21	10	35.7
총합	660	461	282	290	321

자료: 해외건설협회